

하나됨과 나눔

“ 광야로 나아가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자. ”

< 갈라디아서 1장 17절 >

- 사랑방공동체교회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맡겨주신 사명
을 잘 감당할 것을 다짐하며 예배합니다.
- 공동체교회 생일 선물(떡과 음료수)을 준비했습니다.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멋쟁이학교 도보여행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연령별사랑방에서 맡은 주일에 예배를 준비합니다.

제 38 - 17 호
2021년 4월 25일

사랑방공동체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강단을 꽂으로 : 정동은 권사 (창립 감사)

최상득 · 백성복 집사 가정 (창립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구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 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기 관 : 공동체교회 · 공동체학교 · 생활공동체 · 부속기관

선교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고린도후서 13 : 1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TK2000

사 | 랑 | 방 |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행복하지만 좁은 길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 이들의 삶은 행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끝없는 욕망의 구조에 맞서 세상의 편리를 포기하고 자발적 가난을 택하는 것은 넓고 편한 길이 아니다. 하지만 행복하다. 신과 인간, 자연의 새로운 관계를 창조해가기에.

'대안'이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공동체

사랑방공동체는 스스로 대안이라기보다는 “본질의 회복을 추구하는 공동체”라고 표현한다. 사랑방공동체가 회복하려는 교회의 본질은 코이노니아이다. 사랑방공동체는 본질의 회복을 위해 ‘감격 있는 공동체생활, 교육목회의 실현, 선교적인 삶’을 목표로 1984년 4월 29일에 설립되었다. 그 후 햇수로 18년 동안 공동체의 신학적, 조직적 토대를 형성하였고, 1997년에 경기도 포천 무림리의 넉넉한 자연 속에 보금자리를 만들었다.

무림리로 터를 옮긴 이유는 자연 속에서 더불어 안식하며 생명운동에 참여하기 위함이었다. 공간이 사상을 담아낸다고 할 때 사랑방공동체의 터전은 자연스러운 흐름을 상징한다.

흐름이 자연스러운 공동체

공동체가 실패하는 것은 사상적 미숙과 무리한 외적 확대로 인한 힘의 소모 때문인 경우가 많다. 사랑방공동체는 두 가지 문제점을 느리지만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극복해왔다.

이렇게 의식과 행동을 공동체적으로 변화시키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사랑방성서모임’이었다. 이 모임의 핵심원리는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제시하는 연역적 방식 대신 평신도 스스로의 삶에서 성서의 뜻을 발견하는 귀납적 성서연구였다. 이런 모임을 통해 성서가 나타내는 신자의 삶이 코이노니아임을 자각함으로써 공동체를 일구는 일에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랑방공동체는 조급하게 외적 활동에 치중하기보다는 내적 성숙의 결과가 흘러 넘쳐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게 되는 길을 택했다. 각 사랑방성서모임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작업, 복지시설 봉사 등을 실천과

제로 삼고 있고, 공동체 차원에서도 사회교육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체의 코이노니아를 사회로 넓히고 있다.

함께 사는 경험

사랑방공동체 역시 함께 살아감의 어려움을 경험했다. 이런 어려움은 참된 공동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통과의례였다. 차이를 인정하는 상호존중의 관계를 만들어감으로써 형식적 예의와 계약으로 지탱되는 얇은 인간관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정태일 목사 부부를 비롯하여 몇 교인 가정이 상주하고 있는〈사랑방 디아코니아회〉의 생활 원칙은 공동생산에 기초한 자립이다. 하지만 출판 사업에서 약간의 수입을 얻을 뿐 아직 농사라든지 다른 수입 여건이 여의치 않다. 그래서 교회재정에서 목적헌금을 받아 생활비로 총당하고 있다. 이렇게 받은 생활비는 각 가정별로 균등하게 나누고, 목돈이 필요할 때는 교회에서 지원해준다. 이 공동생활체의 경험은 사랑방공동체의 이상을 구현하는 실험이므로 모든 교인들이 각별한 관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함께 사는 경험은 디아코니아회 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교인들은 금요일 저녁 사랑방성서모임의 성서연구와 교제를 나눈다. 한 해의 전반기에는 함께 여행하고 후반기에는 평가모임을 갖는다. 공동체에 구역이나, 성가대, 교회학교, 남 선교회, 여 선교회 같은 조직이 없는 대신, 이 사랑방모임이 지역별, 연령별, 과정별, 과제별로 특화되어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역할하고 있다.

함께 사는 경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 그대로의 공동예배다. 사랑방공동체는 연령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고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모든 세대의 교인이 함께 예배드린다. 어른들과 함께 사는 분위기에서 자란 어린이들은 공동체의 주체로서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도 잘 감당한다. 사랑방공동체에는 타자를 수용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처음 온 이도 ‘주인처럼’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체를 방문했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별로 없고, 무림리로 옮긴 뒤 교인 숫자가 오히려 두 배나 늘어 현재는 250명 정도가 함께 예배드린다. 예배가 끝나면 공동식사, 찬양모임, 체육활동, 텃밭 가꾸기 등이 이어지면서 하루 동안의 공동생활을 맘껏 누린다.

< 뒤에서 계속 >



한주간의 말씀

“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창세기 17장

제목 :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다

인도 : 정재훈 전도사

찬송 : 292 295 342 390 454 259

1. 내용관찰(What)

<문단구분>

1~8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다>

9~14절 <언약의 표를 세우시다>

15~21절 <사라를 통해 아들을 약속하시다>

22~27절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하다>

2. 내용의 의미(Why)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매우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개명하면서, 많은 나라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신약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를 바탕으로 한 언약입니다.

3. 의미의 적용(How)

- 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도록 합시다.
- ② 하나님께서 흠 없이 살아가는 것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흠없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분의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관계를 언제나 의식하며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앞에서 계속>

공동생활은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다. 함께 살 수 있다는 건 이기적 욕망과 독단을 지양하며 동료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기초월의 현실을 보여준다. 각자의 개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며 조화로운 삶을 몸으로 익혀 가는 사랑방공동체는 우리 삶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게 만든다.

교육공동체로서의 사명

공동체의 사회교육위원회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교육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중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꾸러기학교〉는 대안교육의 한 모델로 널리 알려졌다.

〈푸른꿈 주말학교〉와 〈계절학교〉는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1박하며 4주간 진행되는 주말학교, 방학 중에 진행하는 4박 5일 일정의 계절학교는 함께 먹고 자면서 공동체적 관계 형성 능력을 배우도록 돋고 있다.

청년들이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교육하는 'TK2000(Toward Koinonia 2000)' 운동은 '젊은이 자연예배', '청년 TK2000 훈련', '국내외 공동체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인들을 위해서는 자기발견, 문화프로그램, 주제별 강의 등으로 짜여진 〈자연 속 주민 배움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고, 부설기관인 〈한국교회지도력훈련원〉은 교역자, 신학생, 평신도를 대상으로 공동체 지도자훈련, 사랑방부부 모임, 공동체성서연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스스로를 개혁하는 공동체

사랑방공동체는 스스로에 대한 반성과 평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항존직 시무자의 신임을 묻는 투표를 규정한 공동체의 아홉 번째〈약속〉은 담임목사는 6년, 장로, 집사, 권사는 4년마다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삼분의 이 이상 득표하지 못할 경우 목사는 1년 내에 사임하고, 장로, 집사, 권사는 4년간 휴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약속은 제도적 권위에 의존하거나 신앙적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며, 진정한 공동체적 인격과 신앙의 깊이에서 나오는 영적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이다. 깊은 신앙에 기초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더불어 살아가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사랑방공동체는 뭔가 특별한 것을 계속 창조해갈 것 같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소명,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 정태일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현금은 들어오실 때 현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돋는 이들 안내 : 나송주 이윤희 / 봉헌위원 : 나송주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솔 석지인 옥대철

예 배

인도자 : 권재만목사
설교자 : 정태일목사

요한복음 15 : 5-8
15

영광 영광

시편 86 : 5
301

<성찬식>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공동기도문

구원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희를 불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소명, 신실하게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소명,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의 본문 말씀은 축도로 사용하는 말씀으로 매우 익숙하고 친근한 말씀입니다.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식을 빌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성부) 하나님의 사랑과(성자) 성령의 사귐이”(성령의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특별히 사랑방공동체에서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사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코이노니아’(공동체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본질, 본래의 모습을 밝히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바울의 교회론. 코이노니아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령안에서 누리는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기초로하는 신앙공동체이며, <마16:8>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유기적 관계를 이룬 그리스도의 몸이고, <요15:5>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함께 사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갈4:6> 복음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땅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소명, 코이노니아를 지향하여. 사랑방공동체교회의 창립은 비인 간화 시대를 바라보며 한국교회 100주년을 맞는 때이었습니다.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생활하는 삶의 자세와 교회가 답이라고 생각하여 교회의 개혁과 간증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세계 교회사적인 흐름과도 같았습니다.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방공동체교회를 부르신 소명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전선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꾸러기들이 좋아하는 할머니선생님을 아신가요? 예전에 꾸러기를 다닌 친구들은 교장선생님이신 이월영사모님을 사모님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할머니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한 달에 한 번 있는 할머니선생님과 보내는 특별한 시간이 찾아왔는데 꾸러기들은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번에는 동그랗게 앉아서 서로 하고 싶은 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할머니선생님이 꾸러기들이 하고 싶은 모든 놀이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눈싸움, 탐포놀이, 의사놀이 등 신나게 노는데 기력이 다할 정도로 놀아서 하고 길에 부모님들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하느냐고 질문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놀이를 한 꾸러기들과 같이 놀아주신 할머니선생님 모두 너무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꾸러기들은 만들기 또는 그림과 같은 활동을 하면 창의적이고 멋진 작품을 많이 만듭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한 친구가 갑자기 휴지심에 예쁜 색종 이를 붙여서 만들기를 하는데 거기에 셀로판지를 붙여서 멋진 색깔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본 다른 친구들도 제각각 다른 멋진 망원경을 만들었는데 빨강, 초록, 파랑, 노랑 4가지 색 가진 특별한 망원경들이었습니다. 다만든 망원경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림자놀이도 하고, 망원경으로 세상을 관찰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어서 오후 내내 다른 놀이 없이 망원경만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 외에 멋진 왕관도 만들고, 그림도 그런 아이들의 창의적인 작품이 쏟아지는 한 주였습니다.

< 교사 : 이어람 >

어린이학교

바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봄과 관련된 주제탐험 시간에 모둠별로 3주 동안 예쁘게 만든 봄 관련
배움과 가르침

책을 소개 했는데 “사고 싶은데 얼마예요”라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예쁘고 탐난 책이었답니다. 봄 역사를 소개하는 모둠은 한 명 한 명 소개 할 때마다 아픈 역사에 … 명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린이학교 봄 축제를 소개한 모둠은 다음 주에 곧 열어도 될 만큼 공동체 이곳저곳 아름다운 환경을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봄 농사 팀은 씨를 뿌리고 가꾼 채소들의 모종으로 삼겹살을(?) 구워먹지 못해 아쉬워했지만 조금씩 나눠 가져가며 집에서 키워 먹기로 했답니다.

휴게실 바닥과 계단에 부서진 곳이 많아 예쁘고 깔끔하게 새로 단장 했습니다. 힘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요일에 박성현(23일), 김민지(24일) 어린이 생일축하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 28일(수)~30일(금)에 내과, 안과, 치과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 교사 : 이현숙 >

멋쟁이학교

멋쟁이학교는 봄 학기 가장 큰 공동체학습-도보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멋쟁이학교의 “우린 뭐든지 자신 있어요” 표어처럼 주어진 환경과 상황 가운데 충분히 살아남기 위해서 다양한 학습환경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획했던 제주도 이동학습을 위해 다양한 공부를 했습니다. 특히 멋쟁이학교 공동심화학습을 통해 제주도의 다양한 문화, 역사, 경제 등을 연구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4학년 멋쟁이들은 중국 유학을 가지 못하고 보다 높은 공동체훈련을 통해 1달 동안 제주도에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멋쟁이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사 : 해 은 >

사랑방공동체 그리고 교회, 37번째 생일입니다

37년전 찬란한 봄날, 사랑방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실 사랑방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새문안교회 김동익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과 모인 손님들의 기도로 예배당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벽차고 설레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기대, 희망, 두려움 등, 한발 한발 내딛는 어린아이와 같은 걸음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한사람, 한사람 식구가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 드렸습니다. 때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때론 힘들고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항상 따뜻한 봄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뭄과 여름의 따가운 햇빛과 바람치는 폭풍우 속에서, 마음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거센 물살 속에서도 어려움을 딛고 사랑방교회는, 하나님께 이끌리어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았던 허리케인이 몰려와서 우리 공동체를 뒤흔들어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파괴되고, 쓰러지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고, 서로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많은 상처들을 남겨놓고 물려가 버렸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랑방공동체를,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소리없이 하나하나 정리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상처와 불신이 사라지지 않고 아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찾아 모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제 창립 37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정리되지 못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생활을 온전히 하지는 못하지만 창립할 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다잡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복된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 드리며,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믿음과 신뢰를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사랑방공동체의 지체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장미숙 권사

함께사는 이야기

〈수요 정오기도회〉

말씀 : 빌레몬서 1장 10~17절

인도 : 이어진 전도사

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시민 운동이 군인들에 의해 탄압받고 있습니다. 평화와 정의를 외치는 시위 지도자들 30여명이 붙잡혔습니다. 많은 군인들도 가족들이 영내에 살면서 감시받고 있어, 명령불복종이나 탈영하기도 어렵습니다. 미얀마의 땅에 평화의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가나안 농군학교>

- 1) 2021년 한 해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 2) 다시 가나안을 세워가는 여성 가운데 시험 없도록 지켜주시고 모두가 영육 간에 강건함 가운데 기쁨으로 회복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 3)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대안적 삶과 교육 이 가나안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연령별 사랑방의 시작. 잘 이루어지도록.
- 2) 도보여행을 앞두고 문제가 없도록.
- 3) 공동체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공동체의 마당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올해 유난히 꽃들이 아름답게 활짝 피어납니다. 자연예배당 앞쪽에 자두 꽃이 만발 하더니, 지난 주간에는 흰색 사과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자태를 뽐내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꽃이 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교육청, 경찰서에서 합동으로 시설점검 차 방문하였습니다. 다섯 분이 함께 방문하셨는데, 덕분에 소방안전 관련 시설과 전기안전 시설을 다시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안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잘 정돈된 마당을 보니 마음까지 정리가 됩니다. 보이지 않게 시시때때로 섬긴 공동체 식구들의 봉사의 손길이 참으로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지 않는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섬기는 손길과 그 마음에 평강과 은총을 더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 정재훈 목사 >